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제 42 - 13 호

2025년 3월 30일

-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멧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10주간의 해외문화체험 수업을 위해 31일(월), 정재훈 목사님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 공동체 4월 일정입니다.  
6일(일) 1/4분기 실행위원회 / 7일(월)~19일(토) 사순절 연속기도회  
13일(일) 공동체운영위원회  
17일(목) 세족예배 / 19일(토) 부활절 청소  
20일(일) 부활절, 찬양잔치  
27일(일) 창립기념주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윤호중 · 하경임 집사 가정 ( 이사 감사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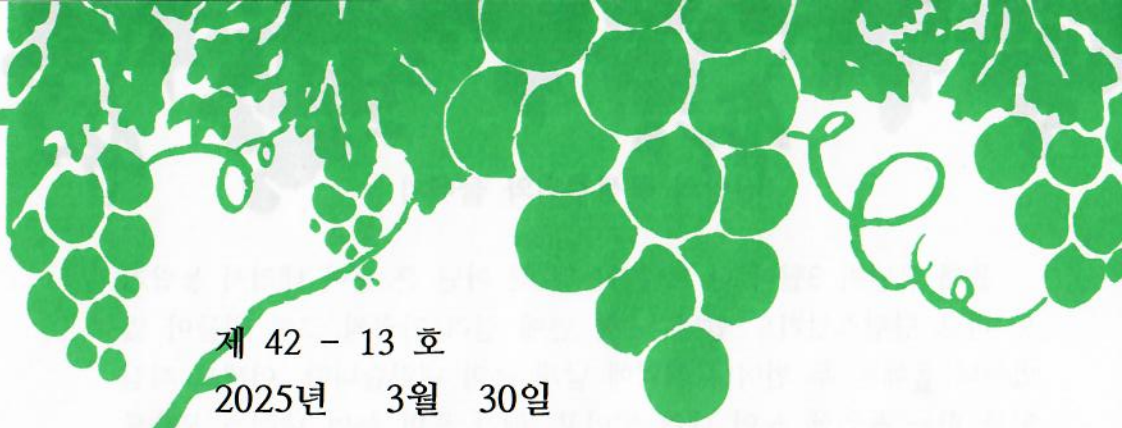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신앙의 꽃샘추위와 물떼기

올해 유난히 3월이 다 지나가는데 때 아닌 큰 눈이 내려서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몇 년에 걸쳐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두 번이나 기억에 남게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도 지킴이를 하는 동안에 눈이 내려 쌓이고, 해가 뜨며 눈이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지붕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3-4월이 되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날씨가 적응 할 때쯤 되면 추운 날씨가 며칠간 찾아옵니다. 이것을 꽃샘추위라고 말합니다. 이른 봄철의 날씨가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이 날씨가 풀린 뒤에 다시 일시적으로 추워지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샘'은 시샘의 준말로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배 아파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봄이 와서 물러가던 추위가 화창한 봄날에 꽃이 피는 것이 왠지 아쉽고 샘이나서 한바탕 추위를 몰고 온다고 생각해서 꽃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합니다. 꽃샘추위는 각종 동파피해, 생육을 방해하는 농작물 피해와 큰 일교차로 인한 감기 유발 등 여러 피해를 일으킵니다. 3-5월 사이에 연평균 7-9일 정도 찾아옵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강한 바람이 함께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잠들어 있던 나무를 흔들어 뿌리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식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러한 자연 현상에 따른 식물들의 적응을 이용하여 농사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품질의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물을 떼는 물떼기 작업을 합니다. 시기는 벼의 이삭이 패기 40-30일전인 7월 초에서 중순으로 5-10일간 진행합니다. 이러한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에 활착을 촉진과 쓰러지는 것을 방지, 잡초 발생 방지 등을 위해서 논 물을 깊게 대는데 중산 물떼기를 하면 헛으로 새끼치는 것을 억제하고 벼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므로 뿌리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꽃을 빨리 맺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줄이고 식물이 힘든 상황에 있게 되면 위기를 느껴 종족 번식의 의미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양분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 식물은 종족을 퍼트릴 이유를 빨리 찾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적당한 어려움은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저마다의 어려움과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매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고난과 수난, 부활, 강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잊지 않고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회력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 더 집중하여 생활하기도 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랑방공동체에서는 우리만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연속기도회와 세족 목요예배와 부활절 찬양잔치를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신앙의 소중한 시간으로 신앙이 더욱 뿌리 깊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  
<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45, 375, 393 / 440

기도 : 전선희 집사

성경 : 출애굽기 3장

제목 :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다

1~3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불꽃으로 나타나시다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4~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아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

11~22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다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주셨다.

Why?

하나님의 현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유일한 본문.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혈기와 자아가 깨어졌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자.

성서일기

##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지난주에 오랜만에 멧쟁이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종종 보지만 매일같이 보고 싶은 친구들과의 이야기는 항상 그 시절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시작된다. 개중 몇 개는 만날 때마다 리플레이되서 다 외울 정도지만 1년 만에 만난 얼굴도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친했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예나는 요즘 뭐해?”

“음 대학교는 별거 없었고... 아직도 솔로고, 이번 학기엔 휴학하고 미국 가”

사실 대학교는 별거 없음 그 이하였다. 지난 학기 내내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회피했다.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조금 외로웠고 날서고 거칠어지기도 했다. 선한 영향력과 대가 없는 섬김, 사랑을 나누겠다는 다짐 따윈 잊어버렸다. 체력을 갈아서 과제를 열심히 했지만 그저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에서 허덕였다. 힘들 때 사랑방을 생각했다. 멧쟁이 학교생활과 선생님 시절을 곱씹었다. 꼭꼭 씹을수록 사랑방공동체 울타리 밖에서의 난 내적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에 도달하며 심란한 종강을 맞았다.

“미국? 누구랑? 얼마나? 왜 가?”

“멧쟁이들이랑 같이 두 달 정도. 운전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러”

설 연휴 기간 멧쟁이학교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족들의 만장일치로 미국 여행 동행이 결정되었다. 마침 휴학 예정이었고 영어 공부도 필요했고 공동체가 그리운 나에게 완벽한 제안이었다. (놀랐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 지구 반대편에 간다는 것도 초보운전 딱지를 달고 학생들을 태운 뒤 몇 백 킬로를 달리는 일도, 또다시 선생님이라는 들을 때마다 설레는 호칭을 듣는 일도, 고칼로리 음식을 아주 많이 먹고 저녁 산책을 하지 못하는 일도 무지 떨린다.

무엇보다 아직도 밖에도 성장하며 나아가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뽀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난다. 그렇지만 설령 정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여유로운 시간이 많다고 들었다. 또 지혜로운 어른, 열 명의 젊은 피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경험도 값질 것이며 나 나름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친구들의 응원과 조언으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니 지금은 그저 더욱 선명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계속해서 소매를 늘어뜨리고 닦게 되는 습한 날의 버스 유리창처럼, 다시 무한한 하트를 그리며 나아가야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 기도 많이 해주세요.

늘푸른사랑방 박예나 집사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예레미야 29 : 11-14a 인도자  
3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11 : 25 인도자  
87, 14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고린도후서 5 : 14-21 설교자  
261 따뜻한사랑방  
“ 화해의 직분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0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 공동기도문

저희의 죄과를 용서하신 하나님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 화해의 직분

사도권 변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회심 소식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써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은혜의 원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화해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곧 은혜입니다.

화해의 직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안목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은 희생을 전제합니다. 희생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이 새 창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전향옥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수요일 오전에 치과 안과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안과와 치과를 방문한 다운이는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검진을 받았고, 꾸러기들 모두 차례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검진을 잘 받고 잘 기다린 선물로 가게에 들러 풍선껌을 샀습니다. 껌 하나 씹 입에 쑥 넣은 꾸러기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냉이를 캐습니다. 난생 처음 냉이를 캐보는 꾸러기와 작년이랑 재작년에 냉이를 캐 본 언니 오빠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게 냉이예요?” “냉이 또 어디에 있어요?” “내 호미 어디에 있어요?”, 동생들도 열심히 서툰 호미질을 하고, 냉이 뿌리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과연 냉이가 맞는지 연신 선생님에게 물으며 오후 내내 함께 냉이를 캐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한 봉지씩 담아간 냉이로 무슨 요리를 해서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리라도 봄 향기를 가득 안겨 주었겠지요?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따뜻해 아이들의 옷차림이 다양 했습니다.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 마스크를 끼고 소꿉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교장 선생님께서 여는 모임시간에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칭찬 했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아이들이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소리에 한 주간을 더 밝게 보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엔 LTSS 시간에 가족관계도 발표도 하고 호칭에 대한 퀴즈 풀기를 하며 어린이 친구들 가정마다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각자 가족 이야기를 하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서일기 시간마다 산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손 모아 마음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닿았는지 약하지만 비가 내려 정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화요일엔 구충제를 복용합니다.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잘 준비해서 우리 함께 먹어요.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슬슬 가벼워지려던 멋쟁이들의 옷차림이 다시금 두터워집니다. 온도 차가 커지면 피곤함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심화학습에서는 따로 휴식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화재예방 및 대피훈련을 거쳤습니다. 남부에 큰 화재가 나서 모두의 신경이 쏠려있어서 그랬을까요? 다들 열심히 듣고 따랐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야기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좋은 방문의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큰 시험을 보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 잘 치르고 오도록 응원해주세요.

내일 월요일에는 드디어 정재훈 목사님과 4학년이 미국에 10주간 떠나게 생활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기대하며 준비했으니, 많은 것을 알차게 경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대청소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도 그렇다.

우리 친정어머니는 참 부지런한 편이셔서 다른 집안일도 좀처럼 미루는 법이 없으시고, 청소도 참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집이 너저분한 상태로 있었던 적은 없다. 내가 엄마만큼 부지런한 딸은 아니고, 느려서 일을 빨리빨리 해내지도 못하지만 보고 자란 게 있어서인지 청소가 안 된 너저분한 상태는 좀 힘들다. 그래서 나도 바쁘거나 피곤하면 당장은 못해도 마음 한 곳에 정리해야 할 곳 목록은 언제나 있는 것 같다.

긴긴 겨울을 보내는 동안 그루터기 공용 공간 이곳저곳에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점점 쌓여가고, 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보기 싫게 변해 버리는 것들도 생겨났다. 그루터기 식구들 모두 이래저래 바쁜 일상을 지내는 터라 함께 눈 치우기도 바빴던 겨울을 보내고 보니, 눈이 녹은 자리에 보이는 그 물건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에 그루터기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두 통했다. 아마 모두의 마음 한 곳에 그루터기 정리 목록이 있었나 보다.

그루터기 겨울공동체생활에서 3월에는 순차적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날씨가 제법 포근해진 지난 주 토요일, 드디어 함께 정자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먼저 정자 위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내려놓고, 차에 실어서 보낼 것과 정리해서 쓰레기장에 버릴 것, 그리고 창고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대형폐기물도 정자 옆에 가지런히 놓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는 일까지 했다. 사전에 정낙귀 집사님께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새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일을 더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어제 방모임 후에는 2차 청소 계획을 세웠다, 4월 첫 주 토요일에 모여서 청소하기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함께 일하다보면 확실히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렇게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자 아자 파이팅!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154, 200

성 경 : 시편 119편 105~112절

말 씬 : 고난 중에 잊지 않을 약속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지도자들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행보가 튀르키예와 헝가리, 세르비아 등 다른 나라 독재 정권이 더 멋대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국의 독재자들이 반민주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미국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데다 '트럼프가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화재 지역과 교회를 위해>

- \* 화재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 \* 화재 진압이 속히 이루어 지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 주일에 결혼하는 윤민정 청년을 위해
- \*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교역자를 위해
- \* 해외문화체험(미국)가는 학생들과 정재훈 목사님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밭에 거름을 뿌리고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어 감자와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올 해 첫 작물입니다.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많은 발작물들을 심어갈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야기학교 신입교사분들이 방문하셨는데 큰 환대를 받았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할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텐데 잘 준비하여 정성껏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꽃샘추위로 우렁차던 개구리 소리가 잠잠해졌는데, 곧 다시 요란스럽게 울리기를 바라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